



## 미국 정부부채 한도 확대 지연

채원영 연구원

- 미국 의회가 9월 부채한도 협상을 시작할 전망이다, 단기적인 절충안을 도출한 뒤 최종 합의를 2014년이나 2015년 중으로 미룰 가능성이 높음.
  
- 2013년 2월 부채한도 적용 유예 이후 부채한도 확대가 지연되고 있으며 재무부 특별 조치로 재정을 운영 중임.
  - 2012년 1월에 확대된 정부부채 한도는 2012년 12월 말 소진되었으나 소득세 감면 연장, 정부지출 자동삭감(Sequester) 등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부채한도 확대가 지연됨.
  - 미 의회는 2013년 2월 4일, 정부부채 한도 적용을 5월 19일까지 일시적으로 유예하여 재무부가 필요에 따라 국채를 발행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도록 허용함.
    - 또한 정부부채 한도가 소진될 경우 재무부는 공무원 은퇴연금 기금 등에 대한 출연 중단 및 일부 계정으로부터의 자금인출, 환율안정기금에 대한 재투자 중단 등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음.<sup>1)</sup>
  - 5월 15일, 미 재무부는 지방정부의 자금운용상 편의를 제공(국세청의 규제 회피)하기 위해 발행하는 SLGS<sup>2)</sup> 증권의 발행을 중단하여 정부부채 증가를 억제하였음.
  
- 미 재무부의 특별조치와 누적 재정적자 개선 등으로 정부부채 한도 확대 없이도 9월 초~10월 말까지는 미국의 디폴트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sup>3)</sup>
  - 2013년 3월 발동된 시퀘스터, 패니메(Fannie Mae Company)와 프레디맥(Freddie Mac Company)으로부터 지급된 663억 달러의 배당금 등으로 미국은 2013년 6월 1,165억 달러의 재정흑자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 12월~2013년 7월 누적재정적자는 전년동기대비 38% 감소한

1) 미 의회는 2월 4일 협상에서 2013년 2월 4일~5월 19일 증가한 정부부채를 부채 한도에 자동 합산하기로 합의하였음. 이에 따라 미국의 정부부채 한도는 5월 19일 16조 6,990억 달러로 자동 상향됨.

2) SLGS(State and Local Government Series securities)는 주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증권으로 정부부채 한도 계산에 합산되기 때문에 발행을 중단할 경우 정부부채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

3) 국제금융센터(2013. 8. 21), “미국 정부부채 한도 확대 지연으로 위기 재발 가능성?”

6,074억 달러로 나타남.

-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2013 회계연도<sup>4)</sup> 재정적자가 6,420억 달러로 감소하여 오바마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2015년 재정적자는 3,780억 달러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음.
- 지난 6월 30일, WSJ는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9월~11월 재개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한 결과, 공화당과 민주당은 단기적인 절충안을 도출한 뒤 협상을 다시 한 번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함.
  - 첫 번째 시나리오는 양당이 모두 만족할만한 세계 개혁안을 포함하는 예산 패키지를 도출하여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될 경우인데, 가능성은 10%에 불과함.
    - 세계 개혁안은 헬스케어와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예산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공화당의 의견을 기반으로 민주당이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 감축 수준을 조절하는 방안임.
  - 두 번째 시나리오는 양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부채한도 상향에 실패하여 전 세계 금융 시장과 미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경우로, 가능성은 25% 정도로 예상함.
  - 세 번째 시나리오는 양당이 단기적 절충안을 마련하여 최종 합의안 도출 시한을 연기하는 경우로 가장 현실적인 방안임.
    - WSJ는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2014년에 있을 재선거를 의식해 부채한도 확대에 대해 성과를 도출하려 할 것이며, 지출 축소 및 세계 변화를 통해 향후 10년 간 약 5,000억 달러<sup>5)</sup> 가량 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함.
    - 7월 23일,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은 재정지출 삭감과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을 연계하겠으나 부채한도 협상 지연으로 인한 시장 충격은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함.
    - WSJ는 양당이 절충안을 도출한 뒤 2014년이나 2015년 중으로 예산 문제를 다시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있음.

(Wall Street Journal 등)

4) 2012년 10월 1일~2013년 9월 30.

5)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재정적자 감축 목표인 1조 1,000억 달러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수준.